

I. 경제동향

1. 실물경제

□ 글로벌동향

— 2018년 3/4분기중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성장세가 다소 둔화

□ 국내동향

— 2018년 3/4분기중 국내 경제는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

2. 통화정책

□ 글로벌동향

— 미 연준이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지급준비율을 인하

□ 국내동향

— 한국은행은 11월 기준금리를 1.75%로 인상하였으며, 내년 하반기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

3. 자금흐름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2/4분기말 글로벌 자금유입은 선진국으로의 순자금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증가세를 지속
- 2018년 2/4분기중 은행을 통한 국가간 자금이동규모는 선진국 및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모두 감소되며 축소로 전환
- 2018년 3/4분기중 선진국 및 신흥국의 주식 및 채권펀드의 순자금유출 규모는 전분기보다 확대

□ 국내동향

- 2018년 2/4분기중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가계 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 축소 및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 확대로 전분기보다 축소
- 2018년 2/4분기중 기업의 자금조달은 직접금융 및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모두 전분기보다 축소

4. 외환시장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3/4분기 미달러화는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, 유로화 및 엔화는 약세를 시현
- 신흥국 통화는 달러화 강세 기조 하에 아르헨티나 및 터키를 중심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임

□ 국내동향

- 원/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북·미 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, 원/엔 환율도 하락

II. 자본시장동향

1. 주식시장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3/4분기중 국가별 주가지수는 미국, 일본,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약세
- 2018년 3/4분기 선진국 주가지수 변동성은 전분기에 이어 완화 국면이 지속되었으나, 신흥국은 전분기대비 확대

□ 국내동향

- 2018년 3/4분기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횡보 양상을 보였으며 거래대금 또한 감소

2. 채권시장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3/4분기에 이어 11월경까지 선진국 국채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가 증시악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반락
- 2018년 3/4분기 이후 신흥국 국채금리는 각국의 통화정책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하락
- 회사채 스프레드는 2018년초 확대추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3/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며 큰 폭으로 확대

□ 국내동향

- 2018년 3/4분기 채권시장은 모든 유형의 채권 발행이 감소하였고, 거래규모는 장내거래가 증가한 반면 장외거래는 소폭 감소
- 국내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지속, 신흥국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모든 만기물의 금리가 하락하였고, 장단기 스프레드는 장기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며 축소

3. 파생상품시장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3/4분기 글로벌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미·중 무역분쟁으로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외환상품의 거래량이 증가
- 스왑체결기구(SEF)를 이용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금액은 전체 파생상품 거래량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7% 감소

□ 국내동향

- 2018년 3/4분기 코스피200 선물·옵션의 거래대금은 코스피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전분기대비 각각 16%, 6% 증가
- 같은 기간 국내 ELS의 발행액은 주요 기초지수인 중국 HSCEI지수의 급락으로 전분기대비 42% 감소

III. 금융투자업동향

1. 증권산업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2/4분기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은 미국 글로벌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분기대비 및 전년대비 증가
- 2018년 2/4분기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의 영업수익은 영업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

□ 국내동향

- 2018년 2/4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및 부채, 자산 규모는 모두 전분기대비 증가
- 2018년 2/4분기중 자기매매 부문에서 큰 폭의 실적 악화로 순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모두 감소

2. 자산운용산업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2/4분기말 글로벌 뮤추얼펀드 순자산은 전분기대비 감소한 40.2조달러
- 2018년 3/4분기말 글로벌 ETP 운용자산 규모는 5.2조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
- 2018년 3/4분기말 주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수익은 대체로 감소한 반면, 운용자산은 소폭 증가

□ 국내동향

- 국내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2018년 3/4분기말 1,082조원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
- 사모펀드시장은 대부분의 유형에서의 자금 순유입에 따라 전분기보다 성장한 반면, 공모펀드시장은 주식형과 MMF의 자금 순유출로 전분기보다 감소
- 2018년 2/4분기 자산운용사 영업이익은 수수료수익 증가로 전분기대비 증가

3. 헤지펀드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3/4분기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규모는 투자자금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인 3.24조달러를 기록
- Macro, Equity, Multi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18년 3/4분기에는 Multi 및 Event Driven 전략에 대한 신규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
- 북미 지역 헤지펀드 시장은 성장세가 지속된 반면, 아시아 및 기타 지역 헤지펀드 시장은 환매 증가와 함께 운용자산 규모 감소

□ 국내동향

- 2018년 3/4분기 국내 헤지펀드 시장규모는 신규펀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설정액이 큰 폭으로 증가

- 프라임브로커 시장점유율 순위는 삼성증권, NH투자증권, 미래에셋대우증권, 한국투자증권, KB증권, 신한금융투자 순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
- 3/4분기중 신규투자는 Repo 및 Equity Hedge 전략을 중심으로 증가

4. 벤처캐피탈 및 PE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3/4분기중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모집은 소폭 감소한 반면 PE의 자금모집은 증가
- 2018년 3/4분기중 글로벌 벤처캐피탈 및 PE(바이아웃) 신규투자는 전분기대비 감소세
- 2018년 3/4분기중 미국 벤처캐피탈 및 PE 신규투자는 성장세

□ 국내동향

- 2018년 3/4분기중 국내 벤처캐피탈 자금모집과 신규투자는 정부의 정책자금 확대에 힘입어 모두 성장세
- 2018년 3/4분기중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에서 IPO와 M&A의 비중 격차는 전분기대비 확대
- 2018년 3/4분기중 PEF 자금모집은 증가하였으나 신규투자는 다소 위축

5. M&A 및 IPO

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3/4분기중 글로벌 M&A는 미국 증시 호조와 산업계 재편으로 거래건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, 초대형거래의 무산 등으로 거래규모는 감소
- 2018년 3/4분기중 글로벌 IPO 시장은 미·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 등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감소

□ 국내동향

- 2018년 3/4분기중 국내 M&A 시장은 대형거래의 증가,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, 금융지주사의 사업 강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거래규모 증가
- 2018년 3/4분기중 국내 IPO 시장은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로 중소형 기업의 상장이 증가하여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전분기대비 증가